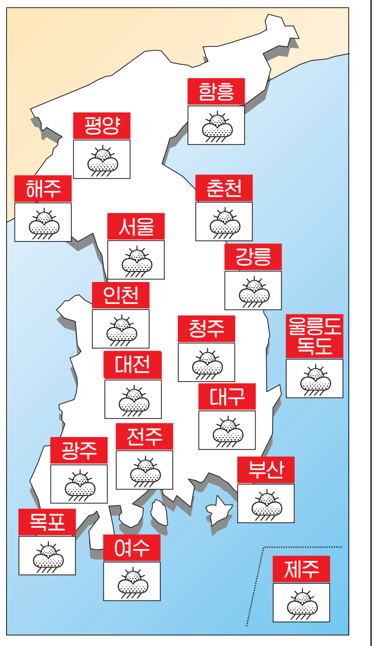
세차 미루세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5월 27일
(음 5월 1일)

날씨

광 주	17~20℃
목 포	16~20℃
여 수	16~19℃
완 도	16~19℃
구 례	16~21℃
해 남	17~20℃
장 흥	16~20℃
고 흥	15~20℃
순 천	16~20℃
영 광	15~20℃
진 도	16~19℃
전 주	17~20℃
남 원	15~19℃
정 읍	16~20℃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5m
서해남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5~3.0m

▲해뜸 05:21 ▲해짐 19:38
▲달뜸 04:50 ▲달짐 20:00

목포 밀물〈02:05 14:00 썰물〈07:21 19:19 여수 밀물〈08:51 21:30 썰물〈02:52 14: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일)	29(월)	30(화)	31(수)	6/1(목)	2(금)
날 씨						
최저/최고	14/20	14/27	14/29	16/27	16/26	15/28

주말 광주·전남 5~20mm 비

주말인 27일 광주·전남에는 5~20mm의 비가 오겠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하루종일 내리겠고 휴일인 28일 오후부터 차츰 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비가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다.

해상에는 오전 한 때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28일도 비가 개면서 포근해져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기초단체장후보는 후원회 둘 수 없다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담당기관이므로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국회의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조항은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5명은 작년 11월 "국회의원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보안법 위반' 강정구교수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6·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짐이 명백하다. 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 선고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처벌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강 교수는 "법은 법이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獨 프랑크푸르트 월드컵 성공기원 한복 패션쇼 가진 김인순씨

"한복 맵시처럼 한국축구 최고 되세요"

광주의 한 한복 장인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토고의 독일월드컵 경기가 열리게 될 프랑크푸르트에서 대한제국 시절 자주(自主)의 상징인 황후의 예복을 재현, 대표팀의 '필승'을 기원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보성주단'의 김인순(여·63)씨에게는 37년간의 한복 장인 생활 중 올해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사)한복진흥회' 등이 지난 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블웨스트 시민회관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 성공 기원 파독간호사 제 4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돼 자신의 작품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37년 한복 장인 광주서 가게 운영

김씨는 궁중한복을 연구한 경험을 살려 '황원삼'(黃圓衫)과 '노의'(露衣) 10벌을 재현, 과거 우리나라 귀부인들의 '아리따운 옷맵시'를 맘껏 뽐냈다. '황원삼'은 황후의 대례복(大禮服)이고, '노의'는 황후와 정 4품 이상 고관의 부인이 입는 옷. 김씨는 지난 한 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황제와 황후의 상징인 '오조룡'(五瓜龍·발톱 다섯 개가 달린 용) 문양을 '황원삼'에 새겨 넣었다.

대한제국 황후 예복 등 10벌 출품

김씨가 '황원삼'을 고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황제의 옷과 같은 색인 황색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왕비의 예복도 빨간색 비단으로 지은 '홍원삼'(紅圓衫)이었다. 그러다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하면서 왕비도 황후로 격상, '황원삼'을 입게 된 것이다.

김씨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황원삼' 속에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프랑스와 스위스 등 쟁쟁한 축구 선진국 앞에서도 조상의 호방한 기개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김씨는 또 함께 참가한 다른 장인들과 함께 100여벌의 배자(조끼)를 만들어 현지 응원단에게 나눠줬다.

김인순씨가 출국에 앞서 '2006 독일월드컵 성공 기원 파독 간호사 제40주년 기념행사'에 출품할 한복을 손질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씨는 "'황원삼'을 감상한 파독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면서 "한복의 맵시가 세계 최고인 만큼 축구 대표팀도 세계 최고가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고 말했다.

조끼 100여벌 현지 응원단에 나눠줘

김씨는 27살 때인 지난 1969년 한복의 세계에 첫 발을 디뎠다. 시어머니의 설빔을 만들다 한복의 매력에 빠져 보성군 보성읍에 '보성주단'을 차린 것이다. 이후 본격적인 장인의 길을 걸으면서 궁중한복에 관심을 갖고, 1995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국대 평생교육원 전통복식학과에서 궁중한복을 연구했다. 2년 전에는 보성에서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프랑크푸르트서 선보인 황후 대례복.

모델하우스 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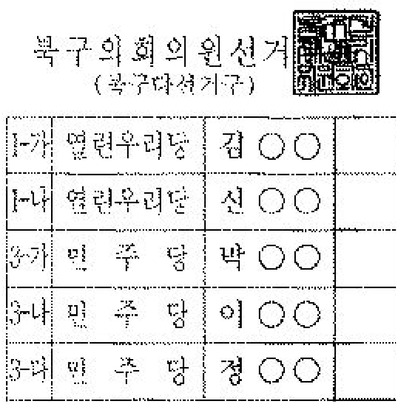
26일 오후12시57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불이나 2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같은당 후보 여러명…헷갈리는 투표용지

기초의원 무더기 무효표 우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가 26일 끝났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당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한데다 선거 기호도 헷갈려 무더기 무효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명의 북구의회의원 후보가 출마한 '북구 다 선거구'의 경우, 후보자들의 기호가 '1-가' '1-나' '3-가' 등으로 시작된다. 〈사진〉기초의원 선거가 올해부터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각 정당이 많게는 4명까지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북구 다 선거구'에 박모·이모·정모씨 등 3명의 후보를 냈고, 이들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는 원칙(선거법 150조)에 따라 ▲박 후보가 '3-가'(3은 민주당 기호) ▲이 후보가 '3-나'▲정 후보가 '3-다'를 각각 기호로 받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 같은 기호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다. 일부 유권자들은 '3-다'기호를 가진 정 후보만 '다 선거구'의 후보인 줄 알고 있었으며,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다'는 말만 듣고 여러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도 있었다.

일부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 무조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가' 후보만 선택했다고 털어놨다. '나'와 '다' 등의 기호를 받은 다른 후보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바코드가 찍힌 봉투에 곧바로 담기 때문에,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아무것도 표시돼있지 않은 봉투에 담은 뒤, 다시 바코드가 찍힌 봉투에 넣었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1층의 '동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신모(41)씨는 "한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여러 명 있어 그들을 모두 선택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선거 당일에는 대형 안내문을 투표장 입구에 설치하고 기표소 내에도 작은 안내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광주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총 선거인수 101만4천620명의 2.7%인 2만7천866명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선거유세현장 소음 측정해보니

평균 83dB…장기간 노출 땐 난청 올 수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현장의 소음이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동명환경건설(주)'(사장 김천두)의 도움으로 26일 오후 1시35분부터 5분 동안 조선대 후문앞에서 열린 모 정당 광주시장 후보의 유세현장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은 83.6dB로 나타났다. 또 순간 최고 소음은 95.1dB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유세를 한 또 다른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평균 소음 83.1dB ▲순간 최고 소음 96.8dB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정한 일반 및 준주거 지역의 주간 소음 허용 기준치는 55dB이며, 공사장 소음이 보통 85~90dB,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은 120dB이다. 8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90dB에선 난청을 초래하기도 한다.

광주시 및 전남도 선관위에는 지난 18일 유세가 허용된 후 소음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10여건 씩 걸려오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유세소음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의 소음은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8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법(제79조 등)은 유세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세가능 시간만 오전 6시~오후 11시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유세용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확성시설은 1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리를 내는 앰프의 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

나원참 〈6839〉 김종두

무등산행 시내버스 증차

광주시는 27일부터 옛 전남도청~무등산장을 왕복하는 '1187번' 시내버스를 2대 증차, 모두 7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 운행되는 버스도 35인승 중형 버스에서 45인승 대형버스로 바꾸고,회수도 기존 50회보다 12회가 늘어난 1일 62회 운행한다. 이에 따라 운행 간격도 18~20분에서 13~17분 줄어든다. 광주시는 버스 증차와 함께 다음달에는 버스 이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하인스 워드 재입국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 소속)가 26일 오후 대한항공 KE036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어머니 김영희(59)씨와 부인·아들 등 가족과 함께 방한한 워드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축구대표 평가전에서 시축하고 응원도 했다.

워드는 5박6일간 머물면서 혼혈아동 지원 재단 설립과 제도적 뒷받침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재단설립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배우 문근영 첫 선거권 행사

보성서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배우 문근영〈사진〉이 26일 오전 보성에서 5·31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에 참여했다. 1987년생으로 올해 만 19세인 문근영으로서는 첫 선거권 행사다.

5·31 지방선거의 홍보대사이기도 한 문근영은 애초 이날 서울 강남구청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영화 촬영 스케줄이 바뀌면서 촬영지인 보성에서 투표를 했다. 문근영은 현재 김주혁과 함께 영화 '사랑따윈 필요없어'(감독 이철하, 제작 싸이더스FNH)를 촬영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가정 팽개친 게임중독은 이혼 사유"

쌍나팔

○…인터넷 채팅과 게임에만 몰두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화제.

○전주지법 가사1부(최은주 판사)는 26일 컴퓨터 채팅에 중독된 아내 이모(40)씨를 상대로 남편 나모(43)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이씨가 2004년 말 무단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

○…재판부는 같은 날, 무직자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남편 김모(31)씨를 상대로 아내 장모(28)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 /연합뉴스